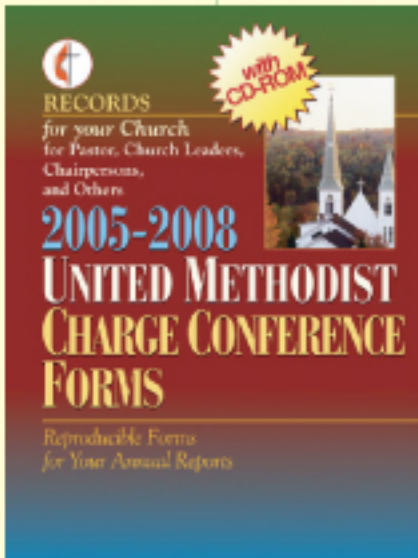


구역회 Charge Conference



구역회는 전체 교단(지역연회)과 개체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다. 하지만, 장로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은 “구역회”란 말에 흔히 혼돈하기도 하는데, 감리교회가 말하는 “속회”를 “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연합감리교회나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구역회라고 부르는 회의는 한 목회구역(개체교회)의 최고의 결기구를 말한다.

교단의 행정구조에서 구역은 최하위 조직 단위로 보여지지만, 세상을 향한 선교의 최선봉에 서 있으며,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구역회는 개체교회를 선교 전략에 따라 유효 적절하게 조직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임원회는 구역회의 감독을 받으며, 담임목사와 모든 임원들은 1년 동안 목회구역에서 행한 다양한 사역 활동을 구역회에 보고한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봉사할 개체 교회의 새로운 임원 선출, 파송 받은 목사의 봉급, 주택비, 건강보험, 연금 납부금 등 모든 종류의 사례비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방안수사역위원회에 천거하기도 한다.

구역회 회원은 대개 그 구역에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임원들로 구성되며, 교인 전체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구역회 대신 교회총회(Church Conference)로 모일 수도 있다(장정 ¶248). 흔히 이와 혼돈하여 쓰고 있는 교인총회(Congregational Meeting)는 이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역회는 연회와 같이 어떤 기관이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방감리사 혹은 감리사가 위탁한 정회원 목사가 목회 구역에 와서 그 구역의 사역 활동을 돌보기 위해 모이는 회의이다. 따라서 구역회의 결의는 그 구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도심지에서는 보통 하나의 교회가 한 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외딴 농촌 지역에서는 여러 교회가 하나의 목회 구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보통 두 개, 네 개, 어떤 지역에서는 여덟 개의 교회가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 구역에 적어도 한 명의 목사가 파송받아 사역하게 된다. 구역회를 위한 일시는 지방감리사가 정하며, 장소는 구역(교회)이 정하게 되어 있다.



김찬희 박사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 CA



총회공보부 이그나이팅 (초청/환영) 사역 광고 전도 캠페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디어 지원기금 신청

- 5월(한달간) 하반기 개회, 성탄절 기간 캠페인
- 대상: 개체교회 혹은 지역 연합회
- 지원대상 미디어: TV, 라디오, 극장, 빌보드 (외부대행기관) 신문 (한인교회에 한함)
- 교회일반광고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이그나이팅 사역광고를 사용해야 함.
- 전도캠페인활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추후평가서 제출.
- 신청서는 이그나이팅사역 섹션 www.KoreanUMC.org에 있음.
- 11월(한달간) 사순절, 부활절 중심 상반기 사역
- 최대금액: 1회 5만 달러, 연 15만 달러(교회가 지출하는 비용만큼 1:1 비율로 지원)
- 광고샘플: www.MediaWarehouse.IgnitingMinistry.org 에서 Korean을 입력하면 볼 수 있다.
- 문의전화: 877-281-6535(영어) 615-742-5118(한어)
- 이메일: kumc@umcom.org